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역사문화생태

### 다자구 할머니와 떠나는 죽령옛길(A타입)

활동장소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습지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전 연령층
참가인원	20명/해설사 2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윤오복

#### 활동목표

- 습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습지생물 관찰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이해한다.
- 죽령의 기원과 역사를 통해 죽령의 가치를 인식한다.

#### 준비물

- 짚신, 신주머니, 사진자료, 습지식물카드, 꽃창호 등

#### 유의사항

- 식물을 꺾거나 작은 곤충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도록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확인 및 운영자 소개</li> <li>- 프로그램 소개</li> <li>- 국립공원 및 소백산국립공원 소개</li> <li>- 안전교육(활동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li> </ul> </li> </ul>	1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짚신신고 옛날이야기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짚신신기 체험</li> <li>- 다자구 할머니와 온달장군</li> <li>- 상원사 동종 이야기</li> </ul> </li> <li>• 죽령습지의 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란 무엇일까요?</li> <li>- 습지식물카드를 보고 식물을 찾아볼까요?</li> </ul> </li> <li>• 꽃창호를 만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창호 만들기 체험</li> </ul> </li> </ul>	65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인사 및 활동 소감 나누기</li> <li>• 설문지 작성</li> </ul>	10분

## 시나리오

###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안내

#### - 참여자 확인 및 운영자 소개

안녕하세요? 소백산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백산과 죽령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았나요? 그랬다면 힘든 기억은 잊고, 여러분이 죽령의 역사와 매력에 깊이 빠져 곧 다시 오고 싶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프로그램 소개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0분 정도 소요되는 일정으로 먼저 국립공원과 소백산에 대한 소개와 죽령옛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점점 사라져가는 고산습지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습지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찾아보고,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유의사항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무리에서 이탈해 개별행동을 하시거나 나무나 꽃을 꺾는 행동은 말아주십시오. 잠시 후 계단으로 내려갈 텐데, 계단 경사가 심하니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프로그램 진행 중 다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뒤쪽에 계신 해설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깊고 푸른 자연의 향기와 옛 성현들의 숨결을 느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갈 죽령습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국립공원 & 소백산 소개

혹시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이곳 소백산처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 또는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을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소백산국립공원은 그중 18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백산은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큰 산입니다. ‘소백(小白)’이라는 이름에 작을 소자가 들어가 있어 작은 산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소백산은 사실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다음으로 큰 산입니다. 백두대간의 시작인 백두산을 비롯해 함백산, 태백산, 소백산에

‘흰 백’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백’은 ‘높다’, 또는 ‘거룩하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의 정상인 비로봉에 오르면 연화봉에서 국망봉에 이르는 산굽이들이 연달아 이어져 거대한 산 바다를 이루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장대하게 펼쳐진 능선 위에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죠. 이 능선이 봄이면 철쭉으로,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수령 200~800년 정도 된 주목 3,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데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 244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종인 모데미풀도 최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외에도 수많은 야생화가 자라고 있어 소백산은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소백산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이동통로이자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 ‘붉은여우’가 소백산에서 복원되어 야생에 방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백산은 우리 선조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왔습니다.

### 짚신신고 옛날이야기 속으로!

#### - 짚신신고 체험

이제 본격적으로 죽령옛길을 따라 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죽령은 영남 사람들이 한양에 갈 때면 문경새재, 추풍령과 함께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었습니 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보부상들도 이 고갯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옛사람이 되어 짚신을 신고 걸어보겠습니다.

신고 온 신발은 나눠드린 신발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짚신을 신고 옛길을 걸으며 옛날 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해보면 조금 더 오래 기억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짚신을 다 신으셨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모두 된 듯하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신을 신고 걸어보니 어떠신가요?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시죠? 많이 힘든 분은 갈아 신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이곳 죽령과 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원두막에 올라가 편안히 앉아주세요.

#### - 다자구할머니와 온달장군

죽령옛길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아랫마을 용부원에 가시면 ‘죽령산신당’이 있는데 산신당의 주인은 소백산 산신령 다자구 할머니입니다. 옛날 옛적 죽령에는 행인의 짐 보따리나 조정에 바치는 공물을 노리는 도적떼가 많았습니다. 도적들 때문에 마을에 피해가 많아 고을 수령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다가 내가 도둑 소굴로 들어가서 ‘들자구야!’라고 외치면 기다리고, ‘다자구야!’라고 외치면 도적들이 모두 잠든 것이니 그때 군사를 일으켜 도적떼를 일망타진하라.”며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알려준 묘책대로 군사가 움직여 죽령 일대의 도적떼를 모두 소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공을 돌리려고 찾아보았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소백산 산신령이 할머니로 현신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해서 산신당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죽령은 바람이 거세고, 소낙비가 거세고, 도둑이 거세다고 해서 ‘삼재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죽령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 “아달라왕 5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달라왕 5년 신라의 죽죽이 죽령 길을 개척하다 지쳐서 순사했고, 고갯마루에는 죽죽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고 전합니다. 죽죽이 개척했다 해서 죽령이라 불리기도 하고, 한 도승이 고개를 넘으며 꽃아둔 대지팡이에서 잎이 되살아나 대숲을 이루었다고 해서 대재[竹嶺]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사실 죽령에 대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고 합니다.

신라 초기에 열린 이 길은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역으로서 오랜 세월 삼국의 군사가 서로 쫓고 쫓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진흥왕 12년에 신라가 죽령을 차지했는데 그로부터 40년 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구려의 온달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죽령 이북의 잃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죽령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수난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 형은 남한의 국군이 되고, 동생은 북한의 인민군이 되어 전쟁터에서 만나는 기구한 장면이 있죠. 영화는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였

는데, 그 배경이 바로 죽령전투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죽령에서는 일본군과 의병 사이에 중요한 전투가 치러진 격전장이었죠. 그래서 죽령은 깊은 회한과 슬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 - 상원사 동종 이야기

죽령과 관계된 옛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였습니다. 세조 때 조정의 지원을 받아 오대산 상원사를 새로 지었는데 범종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국에서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종을 수소문해 보니 당시 안동의 누문에 있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종은 당시 안동의 오래된 절에 있다가 누문으로 옮겨져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리는 시계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1469년 커다란 수레와 수많은 병사들이 움직여 이 종을 상원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에서부터 잘 움직이던 수레가 죽령에 딱 멈춰서 꼼짝을 안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별의별 수를 써도 종이 꼼짝하지 않자 담당 임무를 맡았던 관리가 말하기를, 사람도 고향을 떠나기 싫는데 종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종유 하나를 떼어 원래 있던 자리에 물어줍시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종을 실은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해 무사히 상원사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입증하듯 지금도 상원사 동종을 보면 종유 하나가 없습니다. 이 종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상원사 동종입니다. 고향을 잊지 못해 꼼짝하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는 상원사 동종이 우리가 있는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역사가 아닌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죽령의 또 다른 보물, 습지에 대해 알아보까요?

#### 죽령습지의 친구들

##### - 습지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해발 700미터 가까운 이 높은 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연못? 작은 호수? 웅덩이? 눈썰미 좋은 분들은 저 앞을 지나오면서 안내판을 보셨을 텐데 이곳은 죽령습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가보았거나 TV를 통해 보신 습지와 달라서 좀 이상하시죠? 우리가 습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습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습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

니다.

습지는 말 그대로 습기가 많은 땅, 즉 물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바닷가의 갯벌이나 늪,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못, 저수지, 논도 모두 습지에 포함됩니다. 습지는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죽령습지는 산지습지에 해당됩니다.

습지는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곳이라서 보호하고 있는데 대체 습지가 왜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주세요.(사람들의 답을 들어본 뒤)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 맞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습지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습지에 살고 있는 물풀이나 미생물, 흙 같은 것들이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죠.

둘째, 습지는 물을 저장하는 댐 역할을 해서 자연재해를 막아줍니다. 비가 많이 오면 습지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지연시켜 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막아 홍수 피해를 줄여주죠. 갯벌 같은 경우 해일이 밀려오면 육지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셋째, 습지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킵니다. 습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식물이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습지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해주는 탄소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고산습지인 죽령습지는 매우 강한 산성 토양인 데다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

어 있어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탄층을 형성합니다. 이탄층이란 식물이 죽은 뒤에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암갈색 토양층입니다. 때문에 이탄층은 과거 이곳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소중한 정보처이자 기후변화의 자료를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습지는 엄청난 세월 동안 많은 양의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 죽령습지도 오랜 시간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개간으로 습지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죽령습지는 아직도 산지습지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습지에는 부들, 연꽃, 수련, 물봉선, 쇠뜨기, 환삼덩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식물 중 오늘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마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마리는 우리나라 전역의 도랑이나 개울에서 사는 한해살이풀로 수질을 개선해 주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깨끗한 곳은 물론이고 소똥 찌꺼기가 섞인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산업폐수가 섞인 물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고마리를 ‘고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워낙 번식력이 좋다보니 이리저리 마구 번져나가 ‘이제 고만 좀 번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고마운 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쪽에 분홍빛이 도는 작고 양증맞은 꽃이 바로 고마리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잘 자라 더러운 물을 걸러주는 고마운 고마리의 서식처도 개발과 제초제 사용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잘산다고 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 고마리를 비롯한 습지식물과 동물도 점점 사라지고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죽령습지도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원두막에서 많이 본 식물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네요. 이 친구는 누구лька요? 갈대? 억새? 네, 많은 분들이 갈대와 억새를 혼동하시는데 오늘 갈대와 억새를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억새와 갈대, 달뿌리풀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산마루 바람이 어찌나 센지 갈대와 달뿌리풀은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앞이 뿌리 쪽에 나 있는 억새는 건딜 만했습니다. 억새는 "와, 여기 시원하고 경치가 좋네. 사방이 탁 트여 한눈에 다 보이니까 난 여기 살래"하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갈

대와 달뿌리풀은 "난 추워서 산 위는 싫어. 낮은 곳으로 갈 테야" 하고 역새와 헤어져 산 아래로 내려가다 개울을 만났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달이 동실 떠오르자 물 위에 비친 달에 반한 달뿌리풀은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달그림자를 보면서 살 거야"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갈대 역시 개울가가 좋아 보였지만 달뿌리풀하고 돌이 살기엔 좁아서 달뿌리풀과 작별하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강물에 막혀 더 갈 수 없게 되자 강가에 자리잡았습니다.

역새, 달뿌리풀, 갈대는 사는 곳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의 척박한 땅과 거센 바람에도 역새가 버텨서 역새, 갈 데까지 가다가 멈추어서 갈대라고 기억하면 쉽겠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습지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갈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역새 중에 또 물을 좋아하는 물역새가 있거든요. 역새와 갈대, 달뿌리풀은 생김새로도 구분도 가능하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 - 습지식물카드를 보고 식물을 찾아볼까요?

자, 사람의 오감 중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촉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향기도 맡아보면서 습지 주변에 사는 식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 카드에 있는 식물 중 몇 개나 찾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시간을 준 뒤) 이제 다시 모여주세요. 카드에 있는 식물 중 몇 개나 찾으셨나요? (확인한 뒤) 네,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여러 번 해보니 습지에 사는 아이들과 친해지더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몇 번 더 오시면 되겠죠. 다음 방문 때는 더 많은 습지식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습지생물 이야기는 이만 줄이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험활동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습지 주변에서 식물을 채집해서 꽃창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꽃창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얇은 창호지에 채집한 식물을 풀로 붙여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식물을 풀로 딱 붙이려면 일단 부피가 크거나 뚱뚱하면 안 되겠죠? 압화처럼 얇진 않아도 좀 얇은 식물이라야 예쁘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물 위주로 채집해 와서 나눠드린 꽃창호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하신 분들은 꽃창호를 햇빛에 대고 비춰보세요. 어때요? 빛이 비치



니까 더 예쁘죠? 집에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죽령에서 만났던 이야기와 식물을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마무리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죽령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습지와 습지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과 가까워지면서 예쁜 꽃창호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죽령에서의 시간이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불편하고 아쉬웠던 부분이나 좋았던 점은 설문을 통해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 풍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 뵈겠습니다. 댁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자구 할머니와 떠나는 죽령옛길(B타입)

활동장소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길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전 연령층
참가인원	20명/해설사 2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윤오복

### 활동목표

- 죽령옛길에 얹힌 역사를 통해 죽령의 가치를 이해한다.
- 죽령옛길의 생태를 알아보고 자연과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 죽령옛길을 트레킹하면서 몸과 마음의 활기를 찾는다.

### 준비물

- 사진자료, 돋보기 등

### 유의사항

- 식물을 꺾거나 작은 곤충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 발목이나 무릎 부상에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확인 및 운영자 소개</li> <li>- 안전교육(트레킹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li> <li>- 몸풀기 체조</li> <li>- 소백산국립공원 소개 및 죽령유래</li> </ul> </li> </ul>	2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령옛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구 할머니와 온달장군</li> <li>- 뽕리굴을 아시나요?</li> </ul> </li> <li>• 죽령옛길에서 만나는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엽송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li> <li>- 죽령폭포에서 물소리를 들어요</li> <li>- 자연의 개척자 이끼를 관찰해요</li> </ul> </li> </ul>	6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인사 및 활동 소감 나누기</li> <li>• 설문지 작성</li> </ul>	10분

## 시나리오

###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안내

#### - 인원 확인 및 운영자 소개

안녕하세요? 먼 길을 달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령옛길을 트레킹하면서 소백산과 죽령옛길에 새겨 있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와 신기한 생태 이야기를 들려드릴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우선 오늘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죽령옛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프로그램입니다. 3킬로미터 정도 되는 죽령옛길 구간은 군데군데 산길이 있지만 주로 데크길로 이루어져 있고, 가파른 계단도 있습니다. 아자매트가 깔려 있긴 하지만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구간도 있으니 발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트레킹을 하다 중간중간에 죽령옛길에 얹힌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때문에 걷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저보다 앞서 걸으시다 제가 해설할 때 다시 뒤돌아오시긴 힘들겠죠? 또 너무 뒤떨어져 걷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구간에서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 간단하게 국립공원과 소백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죽령옛길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트레킹하시는 동안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안전교육

그리고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옛길에서 이탈해 개별행동을 하시거나 나무나 꽃을 꺾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 밑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젖어 있는 데크 구간은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치거나 벌레에 물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뒤쪽에 계신 해설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겁니다.

#### - 몸풀기 체조

출발하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의미로 저와 함께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하겠습니다. (몸풀기 체조 후) 그럼 이제 죽령옛길의 짙은 향기와 옛 성현들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죽령으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국립공원과 소백산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소백산국립공원 소개 및 죽령유래

죽령옛길은 소백산 국립공원구역 안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이곳 소백산처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을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소백산국립공원은 그중 18번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백산은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큰 산입니다. ‘소백’이라는 이름에 작을 소자가 들어가 있어 작은 산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백산은 사실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산입니다. 백두대간의 시작인 백두산을 비롯해 함백산, 태백산, 소백산에 ‘흰 백’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백’은 하얗다는 뜻보다는 ‘높다’, 또는 ‘거룩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의 정상인 비로봉에 오르면 연화봉에서 국망봉에 이르는 산굽이들이 연달아 이어져 거대한 산 바다를 이루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장대하게 펼쳐진 능선 위에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봄에는 철쭉을, 겨울에는 하얀 눈꽃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수령 200~800년 정도 된 주목 3,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데 이곳 주목군락은 우리나라 최대의 주목 군락지로서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해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종인 모데미풀도 최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야생화가 계절에 따라 피고 져서 소백산은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소백산은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야생동물의 중요한 이동통로입니다. 때문에 멸종위기 야생1급인 붉은여’가 이곳 소백산에서 복원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백산은 우리 선조들과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흐름을 함께 했습니다.

죽령은 충북 단양과 경북 풍기를 잇기 위해 소백산의 연화봉과 도솔봉 사이를 가르고 만든 고갯길입니다. 삼국시대에 신라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길을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문경의 새재, 영동의 추풍령과 함께 영남 사람들이 서울 나들이를 할 때 지나는 3대 관문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바람이 거세고, 소낙비가 거세고, 도둑이 거세다고 해서 ‘삼재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 5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달라왕 5년 신라의 죽죽이 죽령 길을 개척하다 지쳐 순사했고, 고갯마루에는 죽죽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고 전합니다. 죽죽이 개척했다 해서 죽령이라 불렀다는 말이 있고, 한 도승이 고개를 넘으며 꽃아둔 대나무 지팡이에서 잎이 되살아나 대숲을 이루

었다고 해서 대재라고 불렀다고도 하는데 실제 죽령에는 대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신라 초기에 열린 이 길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역이었던 까닭에 오랜 기간 삼국의 군사가 뒤엉켜 싸우던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이 군사를 끌고 나가면서 “죽령 이북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면 당시 죽령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가 이곳 죽령을 넘어 단양지역까지 쳐들어와 식량과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는 나라에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봉화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모두 없애버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곳 죽령은 6.25 전쟁 때도 중요한 전투가 치러진 전쟁터였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나요? 형제 두 명이 각각 북한의 인민군과 국군이 되어 전장에서 만난 이야기였죠.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죽령전투였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얼마 전까지 고갯마루에 부대가 주둔해 있다 지금은 이동하고 없지만 군사시설이 남아 있고, 군인들이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 죽령옛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 -다자구할머니와 온달장군

옛길의 역사가 워낙 깊다 보니 죽령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아랫마을 용부원에 가시면 죽령산신당이 있는데 산신당은 죽령을 지키는 산신령인 다자구 할머니의 뉘를 모신 곳입니다. 옛날 이곳 죽령에는 행인의 짐 보따리나 조정에 바치는 공물을 노리는 도적떼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많아 고을 수령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나타나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다가 내가 도둑 소굴로 들어가서 ‘들자구야!’라고 외치면 기다리고, ‘다자구야!’라고 외치면 도적들이 모두 잠든 것이니 그때 군사를 일으켜 도적떼를 일망타진하라”는 묘책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해서 군사들이 죽령 일대의 도적을 모두 소탕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군사들이 할머니에게 공을 돌리려고 찾았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령의 산신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다자구 산신당을 세워 지금도 해마다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산신령은 할머니

산신령이랍니다. 자, 이제 다시 걸어볼까요?



#### - 짜리굴을 아시나요?

저기 기찻길이 보이시나요? 죽령옛길에서는 이렇게 기찻길도 보이고 고속도로도 보입니다. 저 철도는 청량리에서 출발해 경주, 부산까지 달리는 중앙선 철도입니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소백산을 넘는 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옛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었죠. 아시다시피 일제는 만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조선을 병참기지로 사용하고, 조선의 식량과 각종 자원을 빼내갈 목적으로 서둘러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철도가 놓이는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고 힘없는 조선인들을 철도건설에 강제로 동원했으며, 철도건설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총살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백산 구간은 산이 높고 지형이 험해 공사하기가 몹시 까다로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아래 굴을 파서 360도 회전을 하며 고도를 극복하도록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차가 낮은 곳으로 진입해 큰 원을 그려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한 바퀴 뱅 돌아 반대편 터널로 나오는 이러한 터널을 뱀이 꼬리를 튼 모양이라 하여 짜리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기차는 석탄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였습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차를 짜리굴 같은 터널 구간에서 운행한다는 것은 기차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사람들이 그냥 다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디젤 기관차를 운행할 때도 저 멀리서 굴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후다닥 닫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시커먼 연기가 객차에 들어와 콧구멍이 새까매지고 흰옷에 검댕이 묻는 낭패를 보기 일쑤였죠.

그런데 1949년, 그러니까 6.25전쟁 한 해 전 8월 18일 한여름이었습니다.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가던 505호 기차가 저녁 6시 무렵 이 짙리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멈추더니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서니까 석탄을 때는 화부는 죽어라 열심히 석탄을 퍼 넣었고, 기차는 나갈 듯 말 듯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 굴뚝에서 쏟아져 나온 독한 석탄가스 와 수증기가 짙리굴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굴속이라 암흑천지인 데다 객차가 석탄가스로 가득 찼으니 승객들은 숨을 쉬지 못해 말 그대로 생지옥에 갇힌 셈이 되었죠.

얼마 후 기차에서 쓰러진 사람과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기차와 짙리굴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차장이 기차에서 쓰러지고 기관사도 쓰러졌습니다. 터널 관리자가 사고를 알아채고 단양역에 구조신호를 보내 구조차량이 도착한 것은 밤 9시쯤이었습니다. 구조대 100여 명이 횃불을 들고 짙리굴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작업은 날이 흰히 밝아서야 다 끝났는데 이 사고로 당시 51명이 사망하고 3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3번 객차의 꿈무늬와 4번 객차의 앞머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끊어진 것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졌죠. 이 사고는 지금부터 71년 전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이듬해인 6.25 전쟁에서 벌어졌죠. 피난민들을 가득 실은 열차가 저 앞에 보이는 철도를 따라 요란하고 고단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을 겁니다. 그 전쟁도 벌써 70년이 지난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는 옛사람들의 삶과 고통, 기쁨과 영광이 깃들어 있게 마련이죠. 알고 보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기차와 철도에도 민족의 역사가 서려 있고, 조상들의 아픔과 시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 죽령옛길에서 만나는 이야기

#### - 낙엽송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시 멈춰서 주변을 한 번 둘러볼까요? 하늘로 쪽쪽 뻗은 늘씬한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분 있나요? 네, 낙엽송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바늘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들은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지만 이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누렇게 물들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잎이 지는 소나무란 뜻으로 낙엽송이라고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일본잎갈나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00년대 초일본에서 들어왔는데 키가 30m, 지름이 1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는 조림수종이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낙엽송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대표 나무는 소나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등이 굽은 소나무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래 전에는 시원하게 짝짝 뽀은 토종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 때문에 지금은 곧게 뽀은 소나무를 보기 힘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죽령 주변뿐 아니라 전국에서 울창한 소나무를 수없이 많이 베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잎갈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그때 심은 나무가 아니라 1960~70년대 헐벗은 우리 산야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녹화사업을 벌였는데, 그때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심은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남긴 상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산야 곳곳에 이렇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 – 죽령폭포에서 물소리를 들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죽령폭포입니다. 소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죽령계곡을 흐르다 3미터 가까운 높이에서 떨어져 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정한 숲과 폭포가 어우러져 비경을 연출한다는데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는 정면을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죽령옛길을 따라 계곡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의 기반입니다.

물은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 다시 대기 중으로 발산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발산된 물로 인해 숲에서는 청량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나무가 많은 숲에 가면 시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공기 중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이온은 엔돌핀을 활성화시켜 행복한 기분을 증폭시킴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건너편 철도관사가 보이는데, 저곳이 바로 다자구 할머니가 소탕한 도둑소굴이었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굴을 파고 도둑들이 살았고, 다자구 할머니가 들어갔겠죠. 이동하겠습니다.

#### – 자연의 개척자 이끼를 관찰해요

다리를 건너오면서 계속 지나쳤는데, 혹시 주변의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를 보셨나요? 이곳은 이끼의 땅입니다. 자연의 위대한 개척자인 이끼는 어떤 생물보다 먼저 지구상에 자리를 잡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극이나 고산지대처럼 생물이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해 환경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끼류와 지의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바위나 나무껍질에 붙어 사는 데다 같이 몸을 붙이고 살기도 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이끼는 선태식물이라는 독립식물이고, 지의류는 곰팡이인 균류와 조류가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합생명체입니다.



특히 지의류는 6개월에 1mm가 자랄 정도로 성장속도가 느리지만 수명이 천 년 가까이 됩니다. 곰팡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류는 광합성을 하죠. 곰팡이가 집과 같은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조류는 그 안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 곰팡이에게 제공합니다. 곰팡이는 조류에게 양분을 의지하고 조류는 곰팡이에게 집을 의지하는데, 둘이 각자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생물이 바로 지의류입니다.

이 지의류는 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의류가 자라면서 배출하는 산이 바위를 파고들어 바위가 빨리 풍화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위가 풍화되면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더 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되고, 흙이 되죠. 바위가 흙으로 부서져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데, 바로 지의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끼류와 지의류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해설사 선생님이 돌보기를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린 돌보기로 주변의 이끼와 지의류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 마무리

자, 여기가 죽령옛길 트레킹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트레킹하시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뭔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좀 불편하시죠. 요즘은 한 사회의 문명 발달 정도를 인터넷 보급 수준으로 가늠하는 시댁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만이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할까요? 나무도 이와 비슷한 네트워크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무는 땅 속 뿌리를 통해 수분을 끌어올리고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죠.

땅 속에는 곰팡이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나무는 곰팡이와 일종의 제휴를 맺었습니다. 곰팡이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썩은 낙엽 같은 유기물질을 분해해 나무에게 필요한 질소와 인을 전달하고, 나무는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을 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일종의 물물교환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곰팡이들은 실처럼 가느다란 뿌리를 만들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 속성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를 이어줍니다.

나무는 곰팡이가 만드는 가늘고 긴 균근을 통해 이웃 나무에게 양분과 수분을 보내줍니다. 이 균근이 광케이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많은 고목, 즉 엄마나무는 숲에서 어린 나무가 어디 있는지, 누가 병들고 다쳤는지 다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나눠줍니다.

애, 균근아, 저기 어린 단풍나무한테 내 물을 좀 보내줘야겠어.

자, 이런 식으로 나무 한 그루가 주변의 나무 몇 그루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나무 약 150그루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모든 나무가 각기 따로 따로 우뚝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땅 속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꿈쩍 못하지만 나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 못지않게 자신을 지키고 천적을 따돌리고 미생물과 연대해 지하세계에 통신망을 구축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이것을 우드넷이라고 부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주변과 소통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물과 흙, 식물과 곰팡이, 동물과 식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 인(人)자는 두 사람이 기대 있는 것을 빗대 만들어진 한자라고 하죠. 오늘 죽령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부모의 부모, 즉 조상들이 한 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죠. 숲에 사는 나무도, 개구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생명체와 인간은 어느 순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돈과 명예, 능력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가서 각자 생활하시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가방 하나에 물과 간단한 간식거리만 준비해서 이 호젓한 죽령옛길을 다시 찾아오십시오. 옛길에 사는 꽃과 나무, 물과 새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여러분을 품어줄 겁니다.

짧지 않은 시간 트레킹 하셨는데, 몸과 마음이 좀 상쾌해지셨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은 설문을 통해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좀더 풍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 뵈겠습니다. 댁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